

“치유의 섬’ 완도 청산도에서 봄을 만끽하세요”

오는 30일까지 봄 걷기축제
42.195km 슬로길 11개 코스
여행 경비 최대 10만원 지원

완도군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한 봄맞이 걷기 축제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을 주제로 한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달간 청산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유채꽃이 핀 청산도를 느리게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걷기,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앞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군민과 관광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 농악대 공연, ‘느림의 종’ 타종, 전복강정 시식 등이 진행됐다.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산에 걸으리랴다’는 총 42.195km 길이의 11개 슬로길 코스를 걸으며 스탬프를 모으는 행사로 완주자에게는 소정



완도군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2026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오는 30일까지 연다. 사진은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완도군 제공>

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매주 주말 오전 11시에는 ‘웰컴 달팽이 버스킹’이, 오후 2시에는 ‘봄의 왈츠 버스킹’이

각각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군은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신흥리 노르드워킹-맨발 걷기’, ‘달빛 나이트 워크’, ‘청산

도 이야기 버스 투어’ 등 다양한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해안 자유길 걷

기 투어’와 야간 은하수를 촬영하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 등의 유료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되며, 해당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카카오톡 채널 ‘청산도 여행’ 내 쿼알(QR) 코드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먹거리 장터도 곳곳에 들어섰다. 도청리와 도락리, 진산리 등 거점 구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을 선보이며, 상서리에서는 전복과 치킨을 접목한 특화 메뉴 ‘복닭복닭’을 판매한다.

이밖에 범바위 전망대 소규모 체험(기 팔찌 만들기 등), 1년 후 배송되는 ‘느린 달팽이 엽서’, 쓰레기 수거 시 미역을 제공하는 ‘줍깅 챌린지’, ‘슬로길 보물찾기’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완도군은 방문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완도 치유페이’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산도의 봄은 천천히 걸어야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수 있다”며 “바쁜 일상 속 숨이 필요한 많은 분이 방문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 윤림산방 400m 벚꽃길 ‘야간 점등’

郡, 오는 14일 전후 절정 예상

진도군이 대표 관광지인 윤림산방 진입로 일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신면 사천리 윤림산방 입구까지 이어지는 약 400m 구간의 벚꽃길에 ‘밝은거리 야간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산중객 맞이에 돌입했다.

군은 이번 조명 설치 과정에서 기존 설비 자체를 적극 재사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

을 최소화했으며, 은은한 조명 밝기를 최적화해 새롭게 조성된 400m 벚꽃터널은 방문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내 벚꽃은 이달 중순인 오는 14일 전후로 만개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개·낙화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야간 관람이나 사진 촬영 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군, 저출생 위기 극복 ‘키움수당’ 신설

郡, 아동 1명당 ‘1억여원’ 보조

9종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추진

해남군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아동 1명당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이 넘는 대규모 맞춤형 현금성 지원을 추진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6년생 기준 아동 1인당 18세까지 총 1억1천48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9종의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정책을 가동한다.

우선 초음파 검진비와 기저귀 구입비 등 기존 10종의 사업을 통합해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신설했다.

2025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1-7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1천68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해당 수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해 2025년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와 함께 1-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천3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추진한다.

0세 아동에게는 신생아 양육비 20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비롯해, 기존 부모급여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해남아이 가치기울 프로젝트’ 협약식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월 100만원)와 아동수당(월 12만원)이 차질 없이 지급된다.

특히 군 자체 시책으로 초·중·고교 입학 축하금 각 30만원과 10-15세 대상 교육수당도 연계 지원하며, 둘째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과 다자녀 양육 장려금 600만원 역시 별도로 유지된다.

아울러 분만 산부인과와 전남 1호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해남아이 가치기울 프로젝트, 고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등 윈윈 안심 출산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출산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통합 지원을 통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군,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의료비 지원

영암군은 8일 “광주은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관내 0-13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10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100’은 출생 미등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의료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해당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비와 약값 일부를 비롯해 영유아 건강검진, 입산부 산전 진료 등을 집중 지원하며, 아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자 대상 한국어 및 금융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한 단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해경, 특수 해양 재난 대비 대응력 집중

영광 풍력단지 등 민간 합동 훈련
AI 사고 영상 활용...배터리 교체

목포해양경찰서가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발맞춰 특수 시설 재난 대응 훈련과 장비 안전성 점검을 연이어 전개하며 전방위적인 해양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영광 해상풍력단지 화재 진압 합동 훈련과 목포 신항 일원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유출 대응도상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사진>

앞서 6일 영광 낙월 해상풍력단지에서는 어선과 발전기 간 충돌로 인한 화재, 내부 작업자 고립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민간 구조 세력과의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가졌다.

이어 7일에는 유관 기관과 함께 지역방재대

책본부를 꾸리고 LNG 추진선 충돌에 따른 가스 유출 모의 훈련을 진행했으며, 인공지능(AI) 사고 영상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 방제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이와 함께 대형 경비함정의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이뤄졌다. 목포해경 3009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배터리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함정 내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를 전면 교체하고 비상용 배터리 전해역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신형 통신망(PS-LTE)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기존 중계기를 철거해 통신 안정성을 높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확대 등 기존과 다른 유형의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함정 장비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영광군, 모빌리티 전자과 시험·인증 고도화

산자부 공모...67억5천만원 확보
잔향실 1동 건립·장비 10종 도입

영광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자과 시험·인증 체계를 고도화하며 서남권 전자과 연구벨트 거점 도약에 나선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미래 모빌리티 전자과 잔향실 시험평가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전자과 잔향실 1동을 건립하고 시험평가장비 10종을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중심의 제한적 시험에서 벗어나, 부품 단계부터 수소차와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전방위적인 검증 체계

를 갖춘다. 군은 자동차 분야를 넘어 가전, 통신, 건설·방산 장비 등 전 산업분야로 시험범위를 전면 확대하며, 광주 지역 소재 부품·장비 산업과 국내 완성차 기업과 연계해 거점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대 산업단지를 서남권 전자과 연구벨트로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공공기관과 컨설팅 기업을 적극 유치해 국내 유일의 전 산업 대응 전자과 시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나주시, 해빙기 상하수도 시설 67곳 점검

3개 점검반 편성 안전관리 등

나주시가 불철 해빙기 지표면 융해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및 낙석 등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하수도 주요 시설과 공사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해빙기 위험 시기인 오는 4월까지 상수도 분야 8개소, 하수도 분야 59개소 등 총 6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

나주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

는 3개 점검반 22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현장을 돌며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비상 대응 매뉴얼과 연락망 구축 여부, 사고 예방 안전 교육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다.

점검 결과 파악된 경미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추가 보수나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출입 통제 등 응급 조치를 선행한 뒤 신속히 후속 개선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을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해빙기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나주=정준환 기자>